

“「공업소유권」을 새롭게 인식했으면...”

럭키 특허업무의 증인 **金순길** 과장

“오늘날은 기술경쟁의 시대입니다.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기술보호는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흔히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면서도 그 '보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도 그를 보호하는 권리를 갖지 못하면 애써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만든 기술을 보호하는 일, 이는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달에 만난 럭키인 金순길 특허과장이 '기술보호=기업생존'임을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통 특허라는 용어에 익숙해있습디만 특허라는 말은 공업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즉 공업소유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특허부는 공업소유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金순길 특허과장이 이달에 만난 럭키인으로 등장

한 까닭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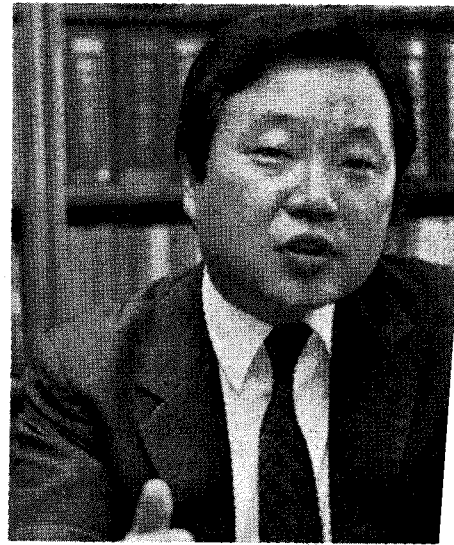
지난 5월 19일 李鼎成사장이 제24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발명진흥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최고대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게된 숨은 주역노릇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특허업무와 관련해 특허관리대상(84년), 동탑산업훈장(85년), 칠탑산업훈장(87년) 등 내놓으라는 상을 차지하게끔 뒷바라지한 공로만도 아니다.

지난 78년의 입사해서 특허에 대한 인식이 보잘 것 없던 당시의 기업풍토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줄곧 일깨워 온 바로 그 땀흘림을 결산할 때이기에 그렇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이제 럭키도 그의 10년 땀흘림으로 특허에 관한 한 국내기업 가운데 우뚝 앞에 섰다.

“우리회사는 74년도에 국내기업 최초로 특허전담부서를 만들었죠. 당시 기업들의 인식이 극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로 선구적인 셈입니다. 이러한 선구자적 노력이 국내 화학업계에서는 현재 최고로 많은 공업소유권을 등록케 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이뿐인가. 화학업계



최초로 '특허부(설유 부장)'로 조직이 커졌고, 87년 7월 물질특허제도가 시행된 후 민간기업으로서의 럭키가 가장 많은 물질특허를 출원했고, 현재 12개의 해외 데이터뱅크를 직접 이용, 최신의 특허·기술정보 입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내 최정상급의 특허부임을 자랑한다.

이제 특허는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전문지식이 아닌 상식이다. 그만큼 특허부서의 위치는 막중하다.

“이번 금탑산업훈장 수상을 계기로 전사원이 공업소유권에 대해 좀 더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바쁜 틈을 쪼개 취재에 응해준 그는 취재가 끝나자 바로 특허사무실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글은 (주)럭키 사보와 수상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

<편집자 주>